



2025년 11월 21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키움증권

미국 지표 재개와 정책 불확실성 지속

다음 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결과와 베이지북, 그리고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섣달의 해제 이후 주요 지표 발표가 재개되면서 경기 흐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 금주 공개된 9월 비농가 신규고용은 1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헤드라인 수치는 양호했으나, 이전 두 달 수치가 모두 하향 조정된 데다 실업률도 소폭 상승해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도 고용보고서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된 상황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 50%를 밑돌고 있으나, 다음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인하 기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선반영한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오히려 점도표가 내년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하 폭을 시사할 경우, 시장은 이를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월 회의 이전까지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회의 이후에는 점차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확대된 환율 변동성도 고려 요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도 발표된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낮아질 수 있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시장금리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11/24~11/28)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11/25	美 9월 소매판매 (MoM)	-	0.6%
	美 9월 소매판매_자동차 및 가스 제외 (MoM)	-	0.7%
	美 9월 PPI (YoY)	-	
	美 9월 근원 PPI (YoY)	-	2.8%
11/26	美 3분기 경제성장률 (QoQ, 속보치)	-	3.8%
	美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93.3	94.6
	美 10월 미결주택매매(MoM)	-	0.0%
	美 9월 내구재주문 (잠정치)		2.9%
11/27	美 10월 PCE 물가지수 (MoM)	-	0.3%
	美 10월 PCE 근원 물가지수 (MoM)	-	0.2%
	美 10월 PCE 물가지수 (YoY)	-	2.7%
	美 10월 PCE 근원 물가지수 (YoY)	-	2.9%
	美 10월 신규주택매매 (MoM)	-	20.5%
	韓 금융통화위원회	2.50%	2.50%
연준위원 발언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11/27)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